

‘불체자 체포 日 3천건’ 백악관 압박에…“과잉단속 속출”

LA 시위 격화에 언론인 부상도 잇따라
합법 이민자들이 체포되는 사례도 빈발
“취해진 상대 경찰 폭력 30여건” 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하루 3천 건”으로 늘리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면서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이런 목표치는 정권 초기 목표치의 3배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관 고위 간부들에게 단속 실적이 부진하다고 압박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범죄혐의가 있는 없든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체포해야 한다며 회의 도중에 “연말까지 100만명 추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방령이 내려진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40만명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하순까지 4개월여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약 20만여명이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실적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다. 다만 2021년에는 신규 불법입국자 수도 많았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홈포나 세븐 일레븐 등 이주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상점들을 단속하라’, ‘눈에 띄는 문신을 하고 범죄조직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단속하라’ 등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 방침들도 ICE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처럼 백악관이 단속 건수를 강조하면서 무리한 단속과 체포가 빈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온 고교생 배구선수가 차를 몰고 연습을 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부오나 포르체타’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지난달 고교를 졸업한 온두라스 출신 축구선수가 ICE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체포됐다.

8세 때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는 이미 ‘구속 대체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 동의 아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로 위치추적을 받고 있었다.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체포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비영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에서 미국 이민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줄리아 젤라트 연구원은 “합법 체류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추방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거나 하면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 대체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이미 당국에 협조 중인 사람들이나 까닭에 이들을 불러내 체포하는 것은 실제 건수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젤라트 연구원은 지적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직원 애비게일 잭슨은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에서 불법체류자를 반드시 추방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단속 항의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기자들의 부상도 속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프레스크럽(LAPC)에 따르면 이번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에 대해 ‘경찰 폭력’ 30여건이 보고됐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은 가방 수색 등도 포함돼 있다.

LAPC에 따르면 경찰 폭력 피해로 다친 기자들의 수는 2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의료적 주의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이들도 5명 이상이다.



11일(현지시간) 경찰이 뉴욕시에서 열린 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에서 시위자를 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국에 하루 3천명의 이민자 구금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AFP=연합뉴스

태국 탁신 전 총리 ‘병실수감 논란’

대법원, 13일부터 특혜 시비 심리

태국 현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VIP 수감’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며 태국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정원에 대한 심리를 13일 개시한다.

법원이 병원 수감생활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복역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프아타이당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와 성장을 저하 등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했다.

병실 수감을 특혜라고 비판해온 야권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당 국민당 랑시만 롬 의원은 “탁신 전 총리 사건과 정부의 여러 현안 처리 방식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단기적으로 현 정권의 통치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태국 국가기구인 의료위원회 판단을 놓고도 갈등이 불거졌다.

의료위원회는 지난달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수준의 중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여한 의사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솜삭 텡수틴 보건부 장관이 의료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재결된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한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23년 8월 22일 귀국했다.

귀국 직후 법원에서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8년 형을 선고받은 탁신 전 총리는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결과적으로 교도소에서 하루밤도 보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장병 41명 “가자지구 전투 불필요…참여 않겠다”

네타냐후 등에 불복종 편지 보내

이스라엘군 장병 41명이 가자지구에서의 전투가 ‘불법’이라며 작전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불필요하고 영원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가자 작전 명령 불복종 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투를 “네타냐후의 통치를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규정하며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려는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지난 3월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습을 재개, 휴전을 파기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사형을 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장병들은 이스라엘 방위군(IDF) 정보국 소속 장교와 예비군으로, 이들은 가자지구에서 이뤄진 지난 20개월간의 공세에서 폭격 지점을 선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들은 “우리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다른 이

들도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전투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 첩보부대인 8200부대 혁혁·퇴역 군인 약 200명도 지난 4월 조속한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을 촉구, 전쟁 장기화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이번처럼 전투 명령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근까지 무장 병력과 민간인을 합쳐 5만5천명이 숨지고 12만5천명이 다쳤다.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은 56명이며, 이 가운데 20명 이상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290명 탑승 에어인디아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

약 200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을 떠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행 여객기

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 정원은 300명이며 사고 당시 약 20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아직 사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